

법원 침탈·테러... '법치주의' 중대 도전

尹 지지자들 서울서부지법 습격 '법의 공간'을 무법천지로 만들어 경찰, 현장서 45명 체포...대통령·의원 사법불신 조장 폭력 부추겨

2025년 1월 19일 새벽, 대한민국의 법치체계가 심각하게 위협받았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된 서울서부지법에서 법의 가치를 떨치고, 깨지고, 던져지고, 짓밟혔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은 폭력으로 이어졌고, 신성한 '법의 공간'을 무법천지로 만들어버렸다. 탄핵과 긴급체포 과정을 통해 법 절차에 따르지 않았던 대통령과 사법 불신을 조장한 정치권이 불러온 초유의 '법적 재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그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와 법원의 체포영장까지 '불법'으로 치부하면서 경호처와 격렬 극우 지지자들 뒤에 숨어 그동안 '불법 영장', '불법 체포'라고 선동해온 검사 출신의 윤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무시한 탓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여당 의원들마저 법원의 정당한 법 집행을 '불법'으로 여론을 호도하면서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해온 점도 이번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여야 정치권이 자신들 진영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검찰과 법원, 판사 등 사법부를 공격한 점도 지금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비관적으로 내몰았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폭력사태로 번진 법의 불신=윤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은 법원을 습격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19일 새벽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일부는 법원 담을 넘어 침입했고,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오전 3시 21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경찰 방패나 경광봉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고, 담배 재떨이, 쓰레기 등을 집어 던졌고 곳곳에서 소화기도 난사됐다.
이들은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아 나서기도 했지만 다행히 차 부장판사는 당시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난입 11분 만인 3시 32분께 경찰이 법원 내부로 대규모 투입돼 지지자들을 진압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신체 보호복(진압복)을 입고 경찰봉을 갖춘 기동대를 투입하는 등 총 1400여명을 동원했고, 오전 6시께에는 법원 안팎의 시위대를 대부분 진압했다. 머리와 얼굴에 부상을 입은 동료를 부축하고, 다급하게 응급 지원을 요청하는 경찰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이날 오전 SNS 등을 통해 전 국민에게 전달됐다.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소방당국에 40여건의 부상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 마포소방서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날 오전 2시 50분부터 오전 10시 30분 현재까지 서부지법 인근에서 41명이 부상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 중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는 이송을 거부하거나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송자 가운데 중상자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 45명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돼 일선 경찰서로 연행됐다. 전날 법원 담장을 넘는 등의 혐의로 체포된 40명을 더하면 이틀간 연행자가 85명에 달한다. ▶2면으로 계속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9일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켜 서부지법 내부가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현직 대통령 첫 구속...법원 "증거 인멸할 염려"

'12·3 비상계엄' 47일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47일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관련기사 2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

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했으며,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휴대전화와 교제하고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해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

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법원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나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희생자 179명 이제 보냅니다" ... 제주항공 참사추모식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의 명복을 기원하는 합동추모식이 참사 20일만인 지난 18일 오전 11시께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열렸다.
추모식은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전남도와 광주시, 무안군이 주관했다. <관련기사 7면>
추모식에는 유가족 731명을 비롯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소방관과 유족 지원에 나선 공무원 1000여명 등 모두 2500여명이 자리를 지켰다.
추모식은 망자의 한을 풀어주는 "진도 씻김굿"으로 시작해 헌화·분향, 추모사 낭독, 애도 영상 상영 등 순서로 진행됐다.

고(故) 윤석호씨 딸 윤나리씨, 고 김영준씨 딸 김다혜씨, 고 박현라씨 남편 김성철씨 등 희생자 유족 3명이 차례로 희생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해 참가자들의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유가족은 추모식 이후 차례로 버스에 올라 사고 현장을 방문해 짧은 묵념을 올렸다.
박한신 제주항공참사유가족협회 대표는 추모사에서 "그들이 세상을 떠난 지 20여 일이 되었으나 아직도 유가족의 시간은 사고가 나기 이전에서 멈춰 있다"며 "관계 기관은 참사의 사고 원인을 투명하게 밝히고 아같은 사고가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25년 광주 복구 5대 중점 신규 시책 안내

기본 돌봄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25. 3월 시행
 - 60명 (월 30만원 최대 3개월)
-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 '25. 3월 시행 / 4-12세 아동 대상
 - 아이 픽업, 병원치료, 약처방, 귀가동행
- 062)410-8027~8 (청년미래정책관)

기본 교통

- 아이맘 교통비 지원
 - '25. 3월 시행 / 24개월 이하 아동 가정
 - 2,000명, 아동 당 5만원
- 교통약자편의 로드맵 APP 제작
 - 교통약자 살맛(SALMAT)나눔 생활편의 로드맵
- 062)410-6364 (장애인복지과)

기본 의료

- 돌봄영역 종사자 무료 독감 접종
 - '25. 9월중 대상자 모집, 10월중 접종
 - 돌봄영역 종사자 1,380명 (50세~64세 종사자)
 - 인플루엔자 4가 백신 1회 무료 예방접종
- 문의 : 062)410-8331 (감염병관리과)

기본소득 보장, 기본서비스 제공,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기본사회**로의 대전환 시작!!